JIPYONG JISUNG
2012년 5월 제3호

Global Business Newsletter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한경BUSINESS 국제면 기고)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2010년 9월부터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 국제(Global) 면에 정기적으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러시아, 일본, 브라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호주 등 한국기업 및 자본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각국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기고되는 내용은 지평지성 Global Business Newsletter에 모아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857호 – 러시아] 러시아 대륙붕 자원 개발, 닫힌 문 다시 열리나

러시아의 대륙붕 지역에 매장된 석유와 가스의 매장량은 약 1000억 톤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현행 러시아 지하자원법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소유하고 러시아 수역에서의 개발 경험이 5년을 초과하는 개발회사(사업자)만 대륙붕을 개발할 수 있다. 현재 지하자원법의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는 오직 두 개의 국영 회사인 로스네프티와 가스프롬뿐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이들 두 개 회사에만 대륙붕 프로젝트 개발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의 '2030 대륙붕 개발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들 회사들의 재정 및 기술 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러시아 정부의 '2030 대륙붕 개발 계획'은 대륙붕 지역에서 2030년까지 4000만~8000만 톤의 석유 및 1900억 ㎥의 가스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중략)

이승민 법무법인 지평지성 러시아변호사

- **제857호 한경비즈니스 인터넷 페이지**

법무법인 지평지성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G 서대문타워 10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상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프놈펜 | 비엔티안 | 방콕 | 자카르타 | 양곤
Copyright 2008 JIPYONG JISUNG All rights reserved.